

東友會報

九泳立  
戴天東  
崔尹金  
發行人  
編輯人  
印刷人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267)8568  
交換(267)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  
의 友誼增進과 母校發  
展에 기여키 위한 事  
業을 전개한다

# 文氣어린 東岳을 文人們의 故鄉으로

韓龍雲 趙芝薰 辛夕汀과 梁柱東등 故人の 偉業을 오늘에 계승시켜야

東國大學校는 그 터전부터가 글과 연관이 있다.  
筆洞이란 地名과 墨井洞이란 근처만 봐도 옛날 남  
산골색님들의 情趣를 더듬을 수 있다.

○ : 傳統은 뚜렷한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숨 쉬는 것이 아니다. 회미하게 그렇지만 年輪만큼 巨大하게 자깝게 멀게 혹은 보일 줄 듯이 存在하는 것이다. 어떤 傳統이건 둑에 걸고 다니며 사람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있을듯 하면서 막상 當의하면 멀어 보이는 實存하는 것은 신기루이다. 傳統이란 말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걸고 전통은 세워지지도 않고 현재 구성원의 그에 뭇지 않은 노력이 없으면 傳統은 세운 영원한 신기루로 훈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傳統은 현재와 대략

○ 東國文學은 開校이래 수많은 大家를 배출하는 韓國文學의 첨단을  
점어온 계사실이다. 그이들은 차라리 눈부시다고 할수 밖에 없다. 오늘  
의 東國文學현실과 비교할때 엿볼수 그들은 너무 눈부신 불빛이었다.  
근래의 東國文學은 침체해 있는게 사실이다. 침체해 있는 東國文學에 활로  
를 열어보자는 自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文學創作敎  
室」까지 열어 어떻게든 東國文學의 전통에 부끄럼지양 후배가 되어 보  
겠다는 노력들이 가상하다. 더욱 반가운것은 新任鄭在覺總長이 취임  
文學傳統에 관심과 지원을 東大特長의 발을 육성시킨 전제하에 종교였  
다는 점이다. 이미 東國文學의 새로운 운명과 中興을 위한 구체적인 方  
策이 마련됨에 있다니 기왕에 불기 시작한 文學傳統再現의 불에 기름이  
되고 있음을 설로 기쁜일이다.

○ 東國大學校는 그터전부터 글과 연판이 있다. 筆洞이란 地名과 동네만파도 옛날살풀센년들의 정취를 더듬을수 있다. 東岳 또한 그간 대출된 술한人文들의 이름을 염두에 거론하지 않아도 東岳을 故鄉으로 둔 大家와 쉽게 만날수있다. 이별듯 솔한 東國文學人 들의 고향에 마땅히 있어야 할 훈전 (詩碑나紀念碑) 이 보이지않는건 운한일이다. 生春文人이라면 구태여 얘기할필요 없겠으나 作故한 韓龍雲、趙芝纖、李夕汀같은 大詩人과 思想과 藥問에 빼어난 梁桂東박사의 紀念碑조차 東岳에 세워지지 않았다는것은 이들과 함께되어있는 文學傳統이 現在이라는 점을 생각할때 커다란 구멍이 아닐수없다. 傳統은 바라보고 있던 자신의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려와 전념과 고독한싸움으로 傳統을 제승발할수 있다. 文藝徒에게 자극을 주기위해선도 가까이 그 볼분들의기념비를 모셔야할 것이다. 어떤 意昧로 보면 그분들의 儀業은 후배에게 따끔한 채찍이될수있다. 아울러 후배들이 마음놓고 뛰어들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다.

○文學의 中興이란 □號로 되는게아니다. 차운차운 東國文學家들에  
계는 母校를 고향으로 다시 찾았고, 후배에겐 그들의 行路에 정신  
적인 지주를 말하여 東國文學의 내영을 거냥해야 할것이다. 술한文人들  
이 글을가꾸던 동우리—이東岳의언덕에 詩碑를, 기념비를 세우자. 故人  
이 데어 다시 고향에 들어오는 傳統을 만들자.

◇ 東岳先生詩壇  
育賓館을 마주보는 언덕 바위에 새겨진 「東岳先生詩壇」의 六字... 이것이 바로 中宗朝의 左相이요, 當世 賤壇의 重鑑인 容齋 李芳의 曾孫이요, 仁祖朝 文增館 뒤흔은 澤菴 李植의 당술인 東岳 李安納先生의 詩壇이다. 이 「東岳先生詩壇」의 刻字는 東岳의玄孫인 李周鎮이 英祖初年에 이룩한 것으로 東岳의 後孫 桐江 李承의 詩文集『桐江遺稿』에 설립『東園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원문생략) 「선생(東岳)이 '넓마다' 당시의 名匠 五峰 李好閔 石潤과 함께 壇과 樓閣 鶴谷 洪瑞鳳들과 함께 壇과 仙과 같고, 글을 익우는 소리가 마치 古樂의 조사를 같다 해서 그다음 神樓라 일컬었고, 그壇을 神壇이라 이름하였다. 鄭憲公 李周鎮이 드디어 그 위안에 築을 풀려 쌓아 올은 데를 깎아내어 爽을 메꿔 壇을 쌓고 아래에다는 냄새를 끌어들여 몸을 맘놓고 바위에다 「東岳先生詩壇」이라 새겨 簡竹과 단풍과 竹籠을 두고자 중세에 깔끔 고쳤다...」

칼라 사진의 선구  
사진예술원  
부설 P-A 칼라 종합현상소  
한국 사진학원  
종로 2가 파고다 아케이트 앞  
TEL. (031) 3018 (74) 3018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 손으로

自主精神 (3)

傳統은 그 민족의 연연한 뼈(肺) —  
한치도 남의 손길을 용서하지 않는 그 겨레 밖의  
술걸입니다.

이 민족적 자주성을 바탕으로 시작되고자라온  
거래의 기업 太平洋化學。  
화장품이라면 「우메나크림」이 고작이었던 시절.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 손으로

가꾸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장업불보(莊業不毛)의 이망에 새로운 뼈를 뿌렸습니다.  
부정 外來化妝品이 범위한단 소용품이 속에서 흘러 꽃같이 자리를 차져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키우며…33년. 드디어 이 땅에서 外製化妝品을 물어내고 성년장업(成年莊業)으로 찬란하게 꽂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국경을 넘고 우리가 만든 화장품·  
상미(薔薇)는 미국·불란서·스위스·일본등 세계  
27개국에. 아모레 미브라는 세계 7개국에 수출  
되어 세계 일류제품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장품은 이제 「국제급」-나의 것을 쓰며,  
그것을 자랑삼던 어제의 부끄러움을 닦는  
이 당시에 꼬리를 아지 않기 위하여 애써 온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것을 아끼고 우리 것을 키워가는 자주정신  
(自主精神) — 태평양학은 이것만이 우리에게  
맑고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주는 지름길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